

국내 의학 학술지 현황과 수준

서 창 옥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회장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의학학술지는 총 764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이하 의편집)에 가입한 회원 학술지는 206종이다. 의편집 회원 학술지는 의학학술단체 발행 학술지 169종, 의과대학 발행학술지 10종, 치의학 학술지 11종, 간호학 학술지 10종, 영양학 학술지 4종, 수의학 학술지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료심사(peer review)를 거친 학술 논문을 수록하며 정기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의편집 가입의 기본 요건이다.

최근 우리나라 학술지들의 현황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질적, 양적인 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국제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 사이에 많은 학술지가 국제적인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고 있다. 학술지의 언어도 한글에서 한글과 영어 혼용으로, 또 영어 단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1996년도 의편집 출범 당시만 해도 영문 학술지는 4종에 불과했고, Medline(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구축하는 의학논문 초록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가 5종이었으며 SCI(미국 Thomson Reuters사가 구축하는 과학분야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2012년 2월 현재 SCI에 등재된 학술지가 25종이고 Scopus(Elsevier 출판사에서 구축하는 전 학문 분야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잡지도 58종이다(표1).

영문 학술지수를 따져 봐도 2008년까지 의편집 회원 학술지 131종 중 9.2%인 12종만 영문학술지이었으나 2009년에는 184종 중 27종(14.7%)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12년 현재는 71종(34.5%)이 영문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이 중 52종이 PubMed Central(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Free/Open Access full-text Archive)에 등재되어 무료로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Pubmed Central에 영문 학술지만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국제적으로 널

표 1. 의편집 학술지 국내 &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현황

	1996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2년
Medline [*]	5	13	14	15	15
SCIE [†]	0	5	22	24	25
Scopus [‡]		-	3	41	58
PubMed Central [§]	-	-	18	38	52
KoreaMed	-	119	156	168	187
KoreaMed Synapse [¶]	-	-	64	82	105

^{*} Medline :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구축하는 의학논문 초록 데이터베이스

[†]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미국 Thomson Reuters사가 구축하는 과학 분야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 Scopus : Elsevier 출판사에서 구축하는 전 학문분야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 PMC(PubMed Central) :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Free/Open Access 전문 (full text, e-journal) Archive

^{||} KoreaMed: 의편집에서 구축하는 한국 의학논문 초록 데이터베이스

[¶] KoreaMed Synapse : 의편집에서 구축하는 한국 의학학술지 전문 (full text, e-journal) 데이터베이스로서 DOI를 사용한 참고문헌 연결 기반

리 옹고 인용되기에는 영문 논문이 더 수월하며, 외국 연구자로부터 투고를 받아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전하려면 영문이어야 한다는 발행 학회와 편집진의 인식 전환으로 인한 현상이다. 물론 논문을 쓰는 국내 의학자들의 수준이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런 국제화에 힘입어 국내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가 범아시아권 학회의 학술지로 탈바꿈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국내 의학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제적 의학 잡지(SCI 등재 잡지)에 발표한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를 조사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의학자들의 논문 발표가 1970년대는 극히 미미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3년도부터 증가 속도가 빨라졌으며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 국내 학술지들이 대거 SCI에 등재되면서 SCI 등재 잡지에 게재되는 우리나라 의과학자들의 논문 수는 2009년 말, 13,000건을 초과하게 되었다(그림1). 발표되는 의학논문수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2위권이며 전 세계에서 발표되는 의학논문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2007년 통계). 또한 2007년 국내 과학기술 논문의 17.6%가 의과학 논문이며 이 비율은 1995년도의 8.8%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여서 타학문 분야에 비하여 발전 속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의학자들의 논문들이 국제적인 잡지에 많이 게재됨으로써 국내 학술지에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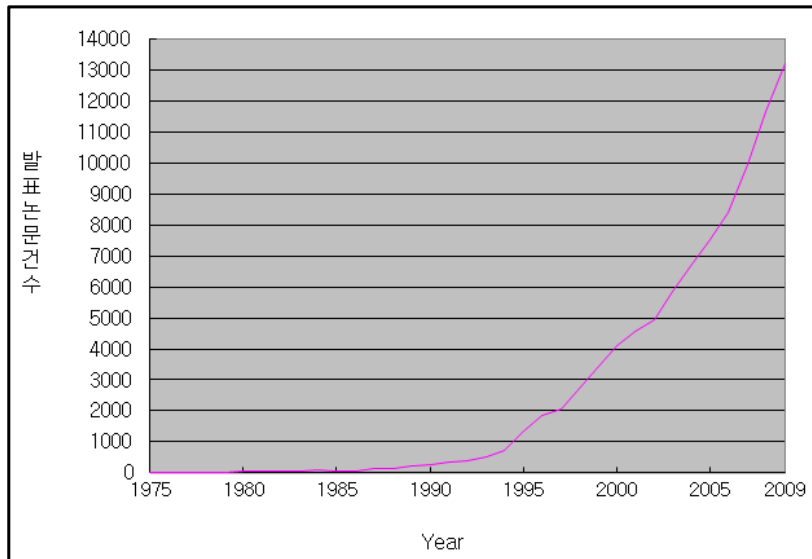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학자가 발표한 SCI 의학논문수의 연도별 추이

재된 논문들이 인용될 기회도 많아지게 되었다.

국내 학술지 중 아직 국제적 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의 논문들도 CrossRef사에서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각 논문에 부여되는 고유색인번호)를 부여받고 있고 DOI를 통하여 KoreaMed Synapse(의편협에서 구축하는 한국의학 학술지 전문 데이터베이스로 DOI를 사용한 참고문헌 연결 기반)로 연결되고 있어서 세계인들이 국내학술지를 쉽게 찾아보고 있다.

국내 학술지의 발전에 의편협이 지대한 역할을 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의편협이 창립될 당시 학술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논문 쓰는 법과 심사하는 법을 교육하고 학술지를 평가하는 데 주력하였지만, 동시에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이 외국에서도 읽힐 수 있도록 영문 초록을 수록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기에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가 가능하였다.

영문초록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는 2001년 9월에 검색을 시작하였고 2012년 1월 31일자로 182,211편의 영문 초록이 등재되어 있다. 2006년 Google Scholar에서 KoreaMed 논문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국내에서 출판되는 논문들이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다, 현재 하루 평균 1500여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KoreaMed Synapse에는 2012년 1월 31일 자로 국내학술지 105종의 논문 29,968 편의 전문이 등재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4,000건의 조회가 일어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에도 많이 등재되고 있다. 다만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가 높은 학술지는 아직 많지 않다. 그러나 국제화되는 속도가 빠르고 국내 의학자들의 연구 수준이 매우 높으며 학술지 발행 단체들의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영향력 지수가 높은 학술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